

牛乳의 길 (밀크로드) 을 따라서

(2 회)

齊藤邦樹 (글)

張德基 (번역)

3. 가깝고도 먼 나라印度

우리들이 이번의 「印度牛乳業視察」을計劃한것은 昨年 7月에 中共牛乳事情視察을 마치고 돌아온 後의 일이었다.

北京에서 萬里長城을 넘어 끝없이 바라보이는 大草原의 蒙古의 遊牧을 살펴본 後, 黃河를 따라 戈壁砂漠을 가로 질러 실크로드의 入口라고도 불리워지고 있는 蘭州에 到達하였을때의 일이다.

옛날의 中國에 있어서는 여기까지가 中國의 領土이고 여기서부터는 所謂 西域의 땅이었다. 廣大한 타크라마칸 砂漠을 끼고 天山南路, 北路와 실크로드가 뻗히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世界の 秘境이라고도 불리워지는 이땅에 카메라가 들어가서 NHK가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紹介해 주고 있는것은 아는 바와 같다.

그 실크로드의 入口인 蘭州의 象徴이라고도 불리우는 白頭山頂의 塔을 올려다 보는 瞬間 「좋아, 來년에는 印度에 가자」라고 決意한 것이다.

그것은 전에 大佛殿落慶에도 썼던바와 같이

1200年前이나 되는 옛날에 이곳을 통하여 佛教가 우리나라에 傳해지게 됨과 同時에 日本의 乳業의 起源도 이길을 통해서 왔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들의 先祖가 極樂淨土라고 꿈꾸던 天竺(印度)는 果然 어떤 곳이었을까?

이世上에서 가장 맛있는 것으로 여겨진 醍醐(우유크림)라는것은 都大体 어떤 맛이였을까?

이렇게 해서 이번의 「印度牛乳業視察」은 神秘스러운 羅漫(Roman)을 실고 誕生하게 된 것이다.

◎天竺(印度)에의 憧憬

그런데 이렇게 해서 計劃된 視察旅行도 막상 實行을하게 되자 놀랐던 것이다.

印度라고 하면 석가모니가 태어난 나라이므로 日本人으로서서는 참으로 親近한 나라로 느껴져 왔다.

그런데 現實의 印度는 옛날의 天竺와는 아주 달라서 實로 疎遠한 存在인 것이다. 고작 首都가 뉴델리이고 都市의 이름이라야 칼카타나 봄베이 程度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人口가

많고 매우 더운 나라라고 말했을 程度다.

더구나 印度의 乳業이라고 하면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 것이다.

印度의 乳業視察을 한다고 하면 깜짝 놀란 듯한 얼굴로 「印度사람도 牛乳를 마십니까」라던가 「印度에도 牛乳工業은 있는 것인가」라고 말하는 것이 大部分이고 정말 醉狂취급이나 면할 정도다.

지금까지 歐美의 乳業視察은 있었어도 印度의 乳業視察같은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며 都大体 하겠다고 計劃한 쪽에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니 道理가 없다.

그래서 印度의 모습을 若干 紹介해 두려한다.

印度는 世界의 지붕이라고 불리워지는 히말라야.山脈의 南쪽, 印度洋에 面接한 나라로 印度亞大陸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面積은 우리 日本의 9배나 크다. 人口는 6億 3千 5百万名이라 하고 中國(中共)에 이어 世界에서 두번째의 大國이다.

간디 首相의 必死的인 産兒制限 政策도 無色할 程度로 爆發的인 人口增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面積이 우리나라의 9배나 되며 人口는 4 배나 되니까 아직 日本보다는 天惠를 받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히말라야 山脈에 源泉을 이루고 갠지스江과 인더스江이 各各 東西로 흘러 孟加拉灣과 아라비아海로 쫓고 廣大한 沖積平野는 古代로부터 肥沃한 農業生産을 올려 印度의 經濟를 지탱해 왔던 것이다.

그 歷史는 5千年이라 불리워지고 古代 인더스 文明으로서 꽃을 피웠고 석가모니를 낳아 많은 宗教가 芽生하게 되어 印度哲學이라 불리워질 程度로 그 깊이가 심원하다.

그러나 17世紀에 이르러 英國의 制壓을 받게 되어 그 以後 200年 동안이나 植民地 支配를 받아 왔다. 19世紀에 들어서서 간디와 네루라고 하는 指導者에 依하여 獨立運動이 일어나고 第二次大戰後에 겨우 獨立을 爭取하게 되었다.

그러나 獨立後 얼마되지 않아, 많은 複雜한 種族, 카스트라 불리워지는 階級制社會 宗教라고 하는 問題가 서로 뒤얽혀서 發展을 阻害하고 있어 앞날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言語만 해도 英語를 包含하여 14種이나 되는 公用語가 認定되고 流通되는 돈에도 이 14種의 言語가 印刷되어 있다.

우리 日本人에게 있어서 印度는 佛敎를 통하여 가장 親近한 나라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놀라울게도 印度에서 佛敎徒는 全體의 1%程度로 힌두교가 85%로 大部分을 占하고 회교가 10%, 그외에 크리스도敎, 시크敎, 자이나敎라고 하는 宗教가 있다.

大部分의 日本人은 석가모니의 나라 印度는 佛敎徒가 많을것으로 믿고 있지만 그만큼 現實의 印度는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에는 貧民이 넘치고 때로는 餓死者가 나올만큼 가난한 나라라고 불리워 지면서도 한편으로는 原子爆彈을 保有하고 王宮같은 邸宅에 사는 上流階級의 사람들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 中間이 없는 나라

이 一面 大端히 珍貴한, 그렇지만 한편 壯大한 로만(Roman)을 求하기 爲해 「印度 飛乳業 事情視察團」은 總員 12名이 11月 1日에 나리다(成田)空航에서 10日間의 旅行으로 出發한 것이다.

그 대강의 스케줄을 紹介하면 나리다空航에서 마닐라, 방콕을 經由하여 印度의 首都 델리로, 델리에서 南下하여 타지마할에서 이름 높은 아굴라에로, 아굴라에서 汽車便으로 Hindu教의 聖地라고 불리워지는 베날레스로, 그리고 베날레스에서 空路로 네팔의 首都 카트만두로 들어가 카트만두에서 방콕, 마닐라를 거쳐 歸國한다는 것이다.

긴 準備期間에 比較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10日間의 旅行은 끝났다.

出發前 「印度에는 무엇하러」라는 質問에 애를 많이 먹었지만 이번엔 「印度는 어떠 했는가」라는 質問에 다시금 對答하기가 어려운 實情이다.

別로 對答할만한 內容이 없어 궁지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다. 反對로 對答할 것이 너무 많아 뭐라 말하는 것이 좋을가 걱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乳業事情은 뒤로 미루고 印度라는 나라의 참 모습과 印象을 傳해 두겠다.

勿論 10日間 程度의 旅行으로 그實態를 이야기 할만큼 많은 것을 본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印度라는 나라의 風土를 理解해주지 못하고서는 그곳에 存在하고 있는 乳業도 매우 理解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廣大한 土地와 多面的인 社會와 異質的인 民族을 簡單히 說明하기란 어렵다.

그곳에서 우리들이 第一步를 저술한 델리의 印象을 이야기 하기로 하겠다. 델리는 印度의 首都로 人口는 500萬이라 한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印度의 施政都市로서 建設된 뉴델리와 옛날부터의 마을 올드델리(Old Delhi)의 두 部分에서 成立되고 있다.

이 뉴델리는 東洋에서도 有數의 아름다운 都

市로서 有名하고 로타리 式의 放射狀의 넓은 道路에는 보리수 나무로된 街路樹가 繼續되고 손질이 구석구석까지 잘 되어 있는 넓디 넓은 公園에는 부겐비리아 꽃이 滿發하였고 高層 近代 建築따위는 없으나 東京等과는 比較가 淺될 만큼 清潔하고 아름다운 都市였다.

그렇지만 한걸음 올드델리에 들어가 보면 쓰러져가는 집, 텐트집, 오두막집, 좁은 商店에 사람들이 밀치달달치락 웅성대고, 쇠뿔과 채소 찌꺼기로 더러워진 좁은 道路는 異常한 냄새를 풍겨 아주 正常的인 精神으로는 接近조차 할 수 없는 區域이다.

빠스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루비한 개 팔아 달라고 조르는 말라빠진 아이들에 둘러쌓이고, 강매하는 商人들이 물려들고 하는 形便이었다. 治安이 그만큼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決코 放心할 수 없는 都會地이기도 했다.

이것이 印度인 것이다. 이 델리에 象徵되는 바와같이 印度의 어느 都市에도 極端的인 兩面性이 보여져 中間이라든가 平均이라든가 하는 곳이 없다. 富者인가, 가난뱅이인가, 롤스로이즈 自動車 곁으로 당나귀가 터벅터벅 짐을 등에 지고 간다.

國民의 大部分이 中産階級이라고 認識하고 텔레비전이나 電話가 當然히 있고, 乘用車를 大部分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日本人의 感覺으로는 到底히 理解할 수 없는 社會라고도 말할 수 있으리라.

이 가난한 群衆을 바라보고서 昨年에 訪問했던 中國(중공)사람들을 生覺해 보았다. 蒙古나 蘭州라고 하는 邊境에 가면 同一하게 큰 무리들에게 둘러 쌓였던것이다. 그러나 中國사람들은 다만 異國人集團에 對한 興味만으로 모인것뿐, 決코 金品을 노린다든가. 남의 물건을 닥치는

대로 흠칠려고 했던것은 아니다. 北京의 土産物
店에서 잇었던 지갑이 上海의 호텔에까지 보내
졌다른가 아이들의 衣服은 貧弱하지만 산뜻한
그리고 清潔한 것이었다.

한눈에 富者라고 보이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
다고해서 길가에서 누더기를 두루고 자고 있는
사람의 모습도 없다. 사람마다 각자 보는 눈도
다르고 主觀도 다르겠지만 印度에는 中間이 없

다는것이 가장 強한 印象이며 그의 極端的인 어
느쪽도 印度라고 말할 수 있는것이다.

그래서 날을 거듭하고 다른 고장을 訪問할때
마다 그런 生覺은 強해지고 數千年의 歷史도 이
社會構造를 變化시키는 일도 없이 繼續되어 온
것이 아닌가?

灼熱하는 自然과 붉은 大地가 이같은 社會를
排出하는것을 痛切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